

★ 2005년 06월 05일 ★ (부산) 기출문제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①	④	①	②	①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①	①	②	③	①	③	①

- ③ : 사실로서의 역사, ①②④ : 기록으로서의 역사
- 신석기 시대에 해당한다. ①② : 구석기 시대, ④ : 청동기 시대
- 6조의 기능 강화는 6조 직계제를 의미하므로 왕권을 강화시킨다.
①②③ : 왕권 견제 기구
- 고구려의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복진 정책과 진송 정책으로,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신속적으로 전개되었다.
- ㉞ 구분전 : 자손이 없는 하급 관료와 군인 유가족에게 지급
㉞ 과전 : 문무반 관료에게 지급되었던 토지
- ㉞ 백제 근초고왕(4세기 중반)
㉞ 고구려 광개토대왕(4세기 후반)
㉞ 신라 진흥왕(6세기 중반)
㉞ 수 · 당과의 항쟁 (6세기 후반 ~ 7세기 초반)
- 백두산 정계비의 비문 내용 중 토문강의 위치에 관련된 부분이 영토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니라 송화강의 상류임이 밝혀짐에 따라 토문을 두만으로 해석할지 송화강의 상류로 해석할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㉞의 토문(土門)이 문제된다.
- ㉞ : 동학, 위정척사와 관련됨.
㉞ : 동학과 개화파와 관련됨.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정체제를 임법기관인 임시 의정원, 행정 기관인 국무원,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구성된 엄격한 3권 분립의 민주공화제를 표방하였다.
- ㉞ : 조선은 법제상으로 양인과 천인의 양천제가 그 기본이었다.
㉞ : 서는 양인(良人) 첩의 자손, 열은 천인(賤人) 첩의 자손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서열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주자학의 귀천의식과 계급사상이 지배계급의 생각으로 자리잡게 되자 서열의 등용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서열은 가정에서도 천하게 여겨 재산상속권이 없었고 관직에 등용되기도 어려웠다.
- 조선 숙종 때 동래 어민인 안용복이 울릉도에 불법으로 침입한 일본 어부를 몰아내고 일본으로 가서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 ()안에 들어가 내용은 직전법의 폐지이다. 직전법이 소멸함에 따라 양반들의 토지의 사적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병작반수제의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게 된다.
- 도병마사에 관한 지문이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과 추밀이 함께 모여 회의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곳으로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

었다.

14. 민정문서에 관한 지문이다. 민정문서는 노동력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1년마다 조사하고 3년마다 마을의 촌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와 비슷한 목적을 지닌 것은 양안과 호적정리이다.

15. (가) 고구려, (나) 부여 에 대한 설명이다.

② 부여는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 고구려는 산악 지대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③ 부여와 고구려는 적대관계였다.

④ 책화는 부여가 아니라 동예의 제도였다. 만약 책화를 어길 때에는 소, 말, 노비 등으로 변상해야 했다.

16. (가) 7.4 남북공동성명 (1972)

(나) 6.15 남북 공동 선언 (2005)

(다)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1974)

17. 민족융합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9서당은 고구려, 백제, 말갈인들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18. ②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담판으로 인해 강동 6주를 확보한다.

③ 강조의 정변으로 인해 거란의 2차 침입이 발발한다.

④ 별무반은 여진족을 북방으로 쫓아버리고 동북 9성을 쌓아 방어하였다.

19. 관민공동회의 연설 내용이다. 천민이 연설을 하고 시전 상인이 만민공동회의 회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권사상과 평등사상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 호란이 전개되면서 조정은 주화파와 척화파로 나뉘게 되는데 결국 척화주전론으로 기울게 된다. 이는 이후 북벌론의 대두와도 관련된다.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국방력 강화의 명분으로 설치된 5군영 체제도 이후 불벌론과 관련이 되나, 이들 군영이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